‘사드 보복 피해’ 기업에 低利 대출

중기청, 예산 1250억으로

정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 1250억원을 투입해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3일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매출이 줄어든 기업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정자금 신청 요건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해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요건에 예외를 적용하고 3년간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횟수 제한도 없앴다. 예산 또한 기존 75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경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검역과 허가 등에서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에는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국강제인증(CCC)과 식료품, 화장품 등을 수출하기 위한 중국위생허가(CFDA) 규격인증 획득 시험과 인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통관 지연이나 계약 파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컨설팅 사업’도 신규 운영한다. 문제의 시급성과 해결 가능성을 고려해 대상 기업을 선별하고, 기업당 35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25개 해외 민간네트워크를 피해 기업에 1 대 1로 연결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대중 무역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4차 산업 관련 中企에 1조 보증

기보, 로봇·자율주행 등

기술보증기금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과 산업에 연 1조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한다고 3일 발표했다. 정부가 올초 발표한 ‘신성장 공동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인더스트리 4.0 퍼스트 보증’이란 상품으로 운용된다.

자동화·로봇·자율주행·3차원(3D)프린팅·바이오·빅데이터·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가상현실(VR)·클라우드 등의 기술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 프로그램에 뽑히면 보증 관련 지원 절차와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특히 우수 기술기업(기술등급 BBB 이상)에 해당하는 ‘핵심 기술’로 분류되면 보증연계투자 추천과 보증비율 상승, 보증료 감면 등 복합적 혜택이 주어진다.

기보 관계자는 “사람과 사람 혹은 사물을 잇는 초연결성과 인공지능 등 초지능화 기술을 비롯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사업 창출, 신시장 창출, 시너지 창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창업지원 보증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연 5조원인 보증 규모를 10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중견기업연구원장 이동기

이동기 중견기업학회장(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사진)이 3일 중견기업연구원 2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이 원장은 국내 중견기업 연구 1세대로서 현재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 경영학과와 뉴욕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및 경영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신성솔라, 146억 공급계약

신성솔라에너지가 동우화인켐과 146억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이송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신성솔라에너지는 올해 11월까지 동우화인켐의 평택 공장에 장비를 납품한다. 납품 장비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보관하고 이송해주는 ‘스토커’와 무인이송장비 ‘AGV’ 등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공장을 증축한 이후 스마트공장용 자동 이송장비 개발과 수주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우린 ‘위키포켓’

두께 3㎜… 수첩만큼 가벼운 블루투스 키보드

두께 6㎜에 무게 87g. 손바닥만 한 크기에 수첩만큼 가볍다. 반으로 접혀있던 것을 펼치면 두께가 3㎜로 줄어든다. 국내 벤처기업 우린이 내놓은 휴대용 블루투스 키보드 ‘위키포켓’이다. 서재홍 우린 대표는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블루투스 키보드”라며 “경쟁사 제품 대비 크기와 무게가 절반에 불과한 데 가격도 절반 수준이어서 출시 후 반응이 뜨겁다”며 웃었다.

◆문자 입력 까다로운 日서 인기

위키포켓은 이름처럼 주머니에 쏙 집어넣을 수 있는 휴대용 제품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와 연동하면 언제 어디서든 노트북컴퓨터를 쓰듯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올해 초부터 일본과 미국에 수출했다.

진가를 먼저 알아본 곳은 일본이었다. 1월부터 지난달까지 1만5000개 이상 팔렸다. 서 대표는 “스마트폰 화면 속 가상키보드로도 입력이 어렵지 않은 한글이나 알파벳과 달리 일본어는 입력이 까다로워 휴대하기 쉬운 위키포켓이 인기를 끈 것 같다”며 “올해 중 일본에서 13만대 판매를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미국에서도 같은 기간 5000대가량 팔려 수출로 두 달 사이 총 3억6000만원 매출을 올렸다.

◆핵심부품 국산화로 가격경쟁력

위키포켓에도 단점이 있다. 너무 얇아 ‘키를 누른다’는 감각이 사용자에게 전해지지 않는다. 직접 사용해 보았더니 ‘안녕하세요’를 입력할 때 오자가 2~3개씩 생겼다. 서 대표는 “처음 사용할 때는 오타가 생기지만 2~3시간만 써보면 쉽게 적응할 수 있다”며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당시만 해도 화면 속 가상키보드가 낯설었지만 지금은 익숙하지 않나”고 말했다. 눌렀을 때 키가 입력되도록 하는 최소 압력을 30g부터 90g까지 설정을 통해 자신에게 맞게 바꿀 수 있다.

크기·무게 세계 최소
가격도 경쟁사 절반 수준
모바일 문자 입력 까다로운 日서 두달간 1만5000개 팔려

서재홍 우린 대표가 휴대용 블루투스 키보드 ‘위키포켓’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우상 기자

위키포켓의 권장가격은 5만9400원이다. 8만~10만원대인 경쟁제품 대비 작고 가벼우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 서 대표는 “인쇄배선기판(PCB)과 압전소자를 자체 개발한 것이 가격 경쟁력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위키포켓이 접히고 펴지는 사이 공간에 들어가는 PCB를 개발하는 데 14억원을 투자했다. 5만번 이상 접었다 폈다를 반복해도 끊어지지 않도록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했다. 손가락으로 키를 눌렀을 때의 압력으로 전기신호가 발생토록 하는 압전소자는 수입품 대비 절반 이하 가격으로 만들었다.

◆‘입력장치 명가’ 노린다

우린은 서 대표가 2013년에 설립했다. 휴대용 블루투스 키보드를 필두로 다양한 입력장치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서 대표는 “1970년대에나 지금에나 키보드는 사라지지도 그 형태가 변하지도 않았다”며 “알파고 같은 우수한 인공지능이 개발된다 해도 입력장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보고 이 분야에 도전장을 던졌다”고 말했다. 우린은 자체 개발한 PCB의 부드러운 물성을 활용한 가상현실(VR) 기기용 장갑을 개발 중이다. VR을 통해 보는 영상 속 사물을 만지거나 조작 명령을 내리는 데 쓸 수 있다.

서 대표는 “이마트를 비롯해 전자랜드, 롯데마트 등과 위키포켓의 국내 유통채널을 늘리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수출 국가도 함께 늘려 올해 매출 44억원을 달성하고 내년에는 기업공개(IPO)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크레모텍-레이저빔프로 (031)717-9728 △우린-휴대폰용 무선키보드 ‘위키포켓’ (031)758-0787 △텍스포머-촘촘망 (053)314-0406 △COD-원핸드락 양념통 (032)677-0122

CJ헬스케어 “2020년 매출 1조 목표”

강석희 대표, 창립 3주년 바이오 신약 R&D 자신감

CJ헬스케어가 2020년까지 매출 1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R&D)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것이란 자신감에서다.

강석희 CJ헬스케어 대표(사진)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열린 창립 3주년 기념식에서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에 집중해 2020년까지 매출 1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전년 대비 12.4% 늘어난 520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679억원으로 26.6% 늘었다.

강 대표는 “그동안 축적해온 R&D 역량을 기반으로 강한 기술력을 가진 제약기업으로 거듭나 CJ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자”고 임직원에게 주문했다.

CJ헬스케어는 2014년 4월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가 물적 분할돼 설립된 제약사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신약(CJ-12420)을 2015년 10월 중국 소화기 전문 제약사 뤄신에 1000억원에 기술 수출하는 등 신약 R&D에 집중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바이오 벤처기업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올초 계열 벤처캐피털인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와 152억원 규모의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를 결성했다. 지난달 첫 투자로 치매 치료 항체신약을 개발 중인 뉴라클사이언스에 20억원을 투자했다. R&D 오픈 이노베이션을 열어 국내외 바이오 벤처기업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CJ헬스케어는 최근 강석희·곽달원 공동대표 체제에서 강석희 대표의 단독 체제로 전환했다.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R&D 조직을 확대했다. CJ제일제당 바이오의약전략실장을 지낸 김병문 부사장을 R&D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허니부시가 뭐지?… ‘먹는 화장품’으로

뉴스카페

휴온스, 임상 마치고 출시

휴온스가 상반기 중에 허니부시(사진)를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음료, 화장품 등을 출시한다.

휴온스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니부시 추출발효분말’이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원료로 인정받았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허니부시 추출발효분말이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에 도움을 준다고 인정하고 기준·규격 및 안전성 등의 항목에 적합 판정을 내렸다. 허니부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나는 노란꽃으로 꿀 같은 달콤한 맛이 난다. 주로 차로 많이 끓여 먹는다.

휴온스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허니부시를 추출·발효해 피부 주름개선 및 보습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지난해 8월에는 허니부시 임상시험을 마쳤다.

휴온스는 상반기 내에 허니부시를 먹고 바를 수 있는 여러 제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자회사인 휴온스내츄럴은 발효분말 및 다양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휴메딕스는 화장품을 개발했다.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한경 경영리더십 프로그램
일하기 좋은 기업, 일한만큼 대우 받는 직장
분규 예방을 위한 노무협상 윈-윈 전략과정
노조와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문화
한국경제신문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무협상전략 교육과정을 제안합니다.
교육 구성
구 성: 이론 교육 6회 / 국외연수 1회 총 45시간 교육과정
교 수: 최영우 자문 교수, 이강성 삼육대학교 교수 외
내 용: 상세한 내용은 http://ac.hankyung.com 참조
프로그램 요약
비 용: 490만원(1인당, VAT없음)
연 수: 독일, 오스트리아 6박 8일 일정
마 감: 4월 14일까지 접수
개 강: 4월 28일 오후 2시
장 소: 한국경제신문사 3층 한경아카데미 강의장
수 료: 소정 시간의 70% 이상 참여 시 수료
문 의: 02-360-4886, kjs@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LG경제연구원 미래 보고서
모든 것의 빅뱅이 온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
2030 LG경제연구원 미래 보고서
빅뱅 퓨처
2030 LG경제연구원 미래 보고서 빅뱅 퓨처

분할 합병 공고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주식액면분할로 인한 주권제출공고
해산및채권신고공고(1차)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소규모 합병 공고
제20기결산공고
제19기결산공고
제18기결산공고
분할합병공고